



제12차 세계한상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투자 및 수출협약 체결식’에서 오스트리아 영산그룹(회장 박종범), ㈜광명데이콤(대표 김한술) 등 11개국 24개사 대표들이 광주지역 기업과 체결한 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세계한상대회 사상 최대 성과 내고 폐막

투자·수출협약 29건 3억9000만달러

비즈니스 상담 합치면 5억달러 달할 듯 지역기업 해외시장 개척 네트워크 구축

‘사상 최대의 경제효과를 발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었다’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지난 31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호남권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는 45개국 국내외 경제인 3000여명이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기사 2면·8면〉
재외동포재단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한상은 광주지역 투자 8건 1억300만 달러와 수출협약 18건 2억8750만 달러 등 총 26건 3억9050

만 달러의 투자 및 수출협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다. 여기에 기업전시회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1617건의 상담(기업전시회 1352건·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265건)이 이뤄져 40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종 집계가 나오면 1억 달러 이상의 상담실적이 예상돼, 이번 광주 한상대회는 총 5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 및 수출상담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5년 새 최대 규모의 실적이며 지난해 서울대회(1억6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발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상공회의소와 국제

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를 비롯한 한상단체 간의 우호협력 4건과 전남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과 한상기업인 간 우호협력 15건도 이뤄져 이번 한상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성과는 영비즈니스리더(Young Business Leader)의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참여로 신진 한상의 활동폭이 크게 넓어진 점이다. 실제 그동안 대회에서 포럼 참여 등에 그쳤던 젊은 한상들은 광주 대회에서 지역 기업들과의 사전 미팅 등을 통해 수출협약을 성사시켜 대회가 양적 성장을 이루는 데 큰 공헌을 세웠다.
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에는 ‘제24차 리딩CEO 내부회의’와 ‘리딩한상 비즈니스 미팅 및 기업전시회 투어’가 진행됐으며 폐회식에서는 차기 대회 개최지인 부산시에 한상가를

전달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해주신 국내외 경제인 여러분 덕분에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상 네트워크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성장이라는 신념 아래 대회기간 구축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대해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014 대학원 신입생모집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2013년 11월11일(월)~22일(금)

각 대학원 신입생 일반전형

2013년 12월 2일(월)~10일(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062)605-1115

“남해안 고속철도 조속 완공을”

전남도 국감서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 촉구

국토부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타당성 조사 착수”

전남의 낙후된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와 지역 화합을 위한 동서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호남고속철 완전 개통을 위한 송정~목포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이르면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무안공항 경우 문제로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송정~목포간 노선은 기존 노선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에서 벗어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호남고속철 완전 개통도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3면〉
3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전남의 SOC와 영·호남을 잇는

교통망 확충 등이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주승용 위원장과 이윤석 의원 등이 지역 출신 의원들이 남해안 철도 목포~부산 고속화사업, 호남고속철, 한려대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등 전남의 현안 SOC 사업들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하자 여야 의원들은 “국회 예산으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서 전남의 유명 관광지를 찾고 있는데 교통이 열악해 너무 불편하다”고 소개한 뒤 “동서 통합을 위해서라도 한려대교, 남해안 고속철도 속원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호남고속철 등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며 이날 국정감사에 동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질타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이르면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가능하고,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조만간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송정~목포 구간은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고속철 신선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호남고속철 완전 개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 완공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들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지원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선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 문책”

차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침묵 깨고 언급…내일부터 서유럽 순방

민주당 “동문서답 개탄”…사과 거듭 요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1일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지난해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해가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박 대통령이 이날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를 앞으로 다가온 서유럽 순방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며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동문서답”라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에게 먼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며 검찰총장, 수사팀장 찍어내며 수사 방해한 것은 누구인가”라며 박 대통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어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왔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개탄스럽다”며 “여당을 ‘무릎 위 고양이’로 만들고 야당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당 민주화란 말인가”고 꼬집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2일부터 6박8일간의 서유럽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프랑스→영국→벨기에→EU 순서로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11월호
10월 28일 발매
구독신청 : 062-220-0550
팩스 : 062-222-0195

참 좋다, 아날로그
느림의 행복, 사람의 향기 찾는 이들
되살아나는 아날로그 풍경
LP카페, 사직골 통기타거리

기획
광주, 문화인프라
문화도시 광주가 기다리는 명품 아트센터
설계를 위한 제안과 벤치마킹
런던 바비칸센터, 파리 퐁파두센터
세계 복합문화센터 그들의 성공전략

예향 초대석
“이제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0년대 배경 장편소설로 독자 만나는 시인 최영미

마추앙은 책과 사람 | “상처를 두려워마라”
철학자 강신주가 안내하는 책으로 가는 길 & 인문적 삶
이달의 아티스트
뮤지컬 연출가 유희성의 무대열정과 ‘빛골 아리랑’ 탄생 뒷이야기

문화역사 기획
조각가의 손으로 탄생시킨 **예술 놀이터 소아르의 가을**
문화공간
전라도 그 맛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별고 찜꼬막
홍로 태운 - 전녕 고를
지역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남포미술관**
감칠맛 애너지 봉장어 구이

이사람 늑대소년, 추격자 등 화제작 메이커
광주출신 '비단길' 대표 김수진의 영화 인생
문화역사 기획
우뚝의 음악은 깃든 충주 탄금대
강물 위를 달리는 애달픈 ‘현의 노래’를 듣는다
문화동행, 편편 클럽
동호회 회원들이 말하는 역도의 매력
“순간의 파워, 중독성 있어요”
스타 데이트
한류스타의 변신
수상한 가정부 ‘박복녀’로 돌아온 배우 **최지우**